

## 국제학회 참관기

## 통합비교생물학회(구 미국동물학회) 참관기



오영근

- 1955~1961 연세대학교 이공대학 생물학과 (이학사)  
 1963~1965 연세대학교 대학원 생물학 전공 (이학석사)  
 1971~1973 Horace H. Rackham School of Graduate  
 Studies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M.S. in Anatomy)  
 1981~1985 Kyushu University Graduate School, Japan  
 (Agr.D.)  
 1961~1967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조교  
 1967~1977 전임강사 및 조교수  
 1978~1981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해부학교실 부교수  
 1992~1993 모스크바대학 생물학부 방문교수 및 University  
 of Hawaii 근충학교실 방문교수  
 1981~현재 연세대학교 문리대학 생명과학과 교수

1996년도 통합비교생물학회(Society for Integrative and Comparative Biology, formerly the American Society of Zoologists)가 미국 New Mexico주 Albuquerque (Convention Center)에서 12월 26일~30일까지 5일간 개최되어 대학원생 3명(장재호, 장은주, 이서울)과 함께 Poster displays 2편을 발표하고 돌아왔다. 이 대회에는 1995년도 워싱턴 연차대회에 이어 두 번째 참석하였는데 그 규모나 내용 다양성에 있어서 어느 국제 학술대회에 못지 않은 방대한 규모와 참여 인원이 많았다고 본다.

대회 제1일(12월 26일)에는 등록, 집행위원회, 처음 참석학생 오리엔테이션, 저녁 8:00시에 알부커키 환영리셉션이 있었고, 제2일(12월

27일)에는 2개의 Symposium (Behavior, Lipids) 4개의 연구분야논문 (Reproduction and Life-cycles, Comparative physiology and biochemistry, Vertebrate morphology, History and philosophy of biology) 구연, 3개의 연구분야 Poster 발표 (Comparative endocrinology, Comparative physiology and bio-chemistry, History and philosophy of biology) 등이 있었고, 각종 Workshop 각종 Committee, 각종 Press회의 등이 열렸다. 제3일(12월 28일)에는 연구논문발표 (Locomotion and Movement와 전날의 연구주제, 그리고 Animal behavior, Developmental cell biology, Ecology and evolution, Invertebrate zoology, Systematic zoology, Vertebrate morphology 등의 Poster 발표), 전공분야 회의 및 대학원생과 박사후과정생과의 친교 시간 등의 집회가 있었다. 대회 제4일(12월 29일)에는 Bartholomew Award 시상식, 2개의 Symposium (Evolution of development, Responses of terrestrial invertebrates to variation in temperature and water availability; Molecular organismal and evolutionary approaches), 4개의 연구분야 구연 (Feeding and foraging, Locomotion and movement, Animal behavior, Comparative endocrinology), 6개 연구분야의 Poster 발표와 AMS workshop 등의 집회가 있었으며, 제5일 마지막 날(12월 30일)에는 2개 Symposium (Muscle properties and organismal function, Thermal and hydric availability), 4개의 연구분야 구연 그리고 저녁 7:00시에 Hyatt, Grand Pavilion에서 대회 마지막 피로연 (End of the meeting Party)을 가졌다.

이상의 발표내용을 보면, 13개의 연구분야별 (Divisions) 구두발표장이 완벽하게 마련되었고, 7개의 Symposium이 진행되었으며, 모두 514개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이상의 자료를 연구

제목별로 대체로 20개 논문 이상이 발표된 것을 보면, Anura, Behavioral ecology, Biomechanics, Crustacea, Development and evolution, Endocrine organs, Evolution, Feeding, Functional morphology, Locomotion, Muscle, Reproduction, Teleostei, Thermoregulation 등이었으며, 10개 내외의 논문이 발표된 분야는, Amphibia, Echinodermata, Embryo, Energetics, Osmoregulation, Nervous system, Passeriformes, Phylogenetics, Sauria, Symbiosis 등이었다. 본인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Chiroptera (박쥐류)에 관한 연구는 3개 (Bacula 음경골, Hibernation and epileptic fit, Biosonar behavior) 뿐이었다. 기타 연구논문수가 5개 내외인 연구분야를 보면 대체로 Ecological studies (Biological rhythm, Breathing, Marine biology, Parasites, Sensorybiology, Skeleton, Systematics, Urodela) 등이었다. 금번 미국 알부커키에서 개최된 통합비교생물학회의 연구논문의 전반적인 경향은, 연구내용이 절대적으로 생태학적인 성향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편향은 현대생물학적인 성향을 띤 미생물학, 세포생물학, 유전학, 분자생물학적 분류학 등의 연구분야가 독립적인 연구단위로 분리하여 나가게 됨으로서, 종래 형태와 구조를 기조로 한 연구분야가 근간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대부분의 연구논문이 연구방법에서 사용된 Tools이, 정확한 통계는 낼 수 없지만 다분히, 진화론적 접근방법으로서 계통학, 발생학, 비교해부학, 생리학, 동물행동학, 운동(근육)학, 집단유전학 등의 배경을 갖고 있는 경향이 짙은 것 같았다.

전 대회기간을 통하여 계속 연구발표와 병행하여 전시된 생물학 서적과 실험기자재 및 교육자재 등은 매우 훌륭하였으며, 이번 전시판매를 통하여 많은 생물학자와 학생들이 큰 수확을 얻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대회 주최자측이 주관하여 안내한 Santa Fe "City Different" Tour는 매우 뜻있는 관광코스로서 특히 St. Francis Cathedral 등 역사적인 유물을 볼 수 있었던 것은 큰 보람이었다. 더욱이 대회기간을 통하여 우리 일행이 느꼈던 감상은, 빈틈없는 대회운영과 철저한 준비 그리고 수준 높은 연구논문의 발표와 조용하고도 진지한 경청분위기 등 거의 완벽한 학술대회였다는데 공감하였다는 점이다. 역시 미국의 학문적인 수준이나 여건이 세계최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이었다는데 이의는 없었다.

우리들도 하루 속히 분발하여 모든 학문적인 수준이나 여건을 고양하여 이와 같은 수준 높은 학술회의를 개최해야 할 것이다.